

너라는 세계 YOU, THE WORLD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옥소 굿그립 감자칼', 특수 재난 대응 모바일 팝업 '볼륨스퀘어', 장애있는 이들이 사용 가능한 '세 번째 엄지손가락' 등...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8월 30일-11월 2일)가 18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작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수신 총감독(미 사바나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학부장), 최태욱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했다. '너라는 세계-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포용'의 가치가 초점을 맞췄다.

최 총감독은 "포용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 화두가 될 만큼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다"며 "포용적 가치가 투영된 디자인 작품들은 수익 창출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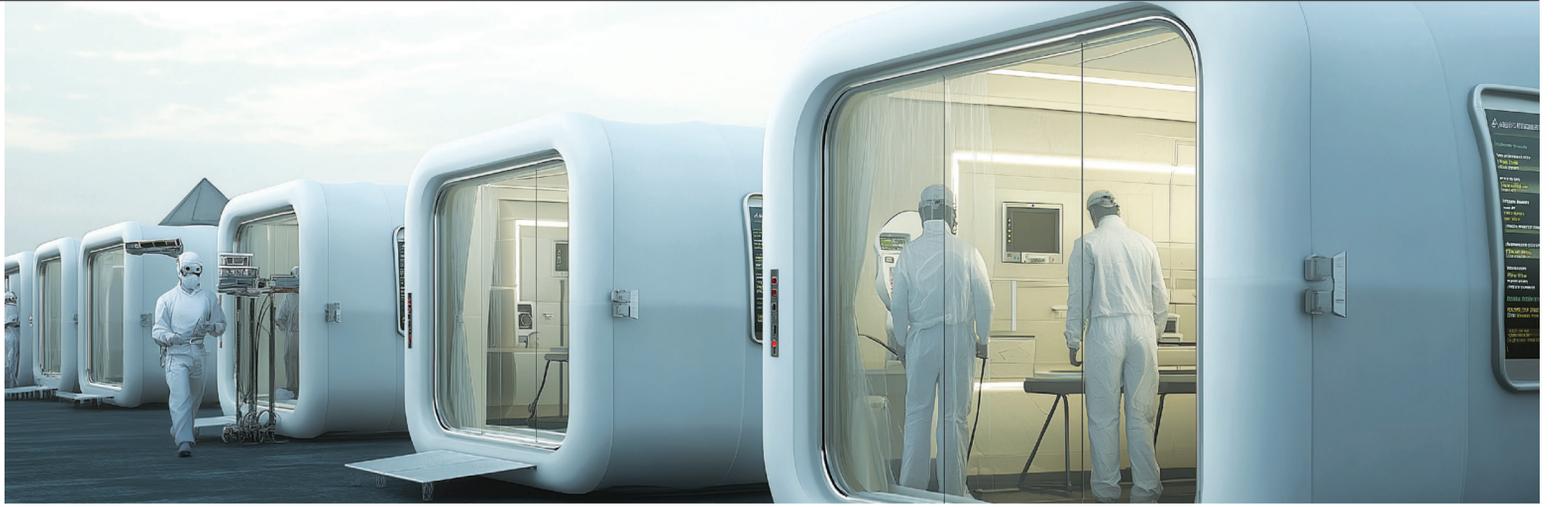
그러면서 "이번 주제가 말해주듯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냐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유럽 미국 등에서 발전해 온 유니버설 디자인과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개념을 확장 연계해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는 역할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18일 현재 11개국, 80개 기관·단체에서 223명이 145점을 출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관은 모두 네 개의 주제로 짜여졌다. 각각의 전시관은 포용디자인이라는 컨셉 아래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로 이뤄졌다.

먼저 1전시관은 '세계'를 포용하는 작품들이 선보인다. 영국 왕립예술대학원 헬렌 함린 센터 작품 '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전통 스쿠터, 밸런스 보드의 요소를 결합 특정 연령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행 보조기기의 기능은 높이고 형태의 안정감, 미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전시관에서는 '삶'이라는 주제와 연관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스마트 디자인의 '옥소 굿그립 감자칼'은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이다. 당초 개발자는 관절염으로 있는 아내를 위해 고안했지만, 모든 이들이 손쉽게 사용 가능한 주방도구로 기능을 확대했다. 그림감이 좋은 감자칼 기능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오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한국과학기술의 '볼륨스퀘어-특수 재난 대응 모바일 팝업병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요 작품 발표 '세계'·'삶'·'모빌리티'·'미래' 콘셉트 8월30일 개막...11개국 145점 출품 국제 디자인 리더 '국제심포지엄'도

장점이다.

이동형 팝업 병원을 상정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전시도 있다. 3전시관은 '모빌리티'를 주제로 펼쳐지며 특수 재난에 대응하는 모바일 팝업(병원)에 초점을 뒀다. 요즘처럼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전쟁, 홍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일명 이동형 팝업 병원, 장애인, 노약자 등이 소외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4전시관은 '미래'에 방점을 둔 제품들이 관객들을 맞는다. '세 번째 엄지손가락'이 대표작. 새끼손가락 아래에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해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고안됐다. 특히 캠프리제와 협업을 통해 인간-

포용적 가치 투영 '디자인 작품' 수익 창출을 넘어 감동을 주다

기계 인터페이스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실용적인 프로젝트도 마련돼 있다. '국제 심포지엄'(8월 30일)은 다양한 분야 연구자 전문가들이 포용디자인의 전략과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국제 디자인 리더들이 '광주 포용디자인 매니페스토'를 선언해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다.

포용의 가치를 실생활에 접목해 구현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를 토대로 결과물을 3전시관에 구현함으로써 많은 이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최태욱 코디네이터는 "20년이 된 광주지하철에 디자인을 접목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염두하고 있다"며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현상 리서치를 매개로 콘셉트를 마련하고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마트 디자인의 '옥소 굿그립 감자칼'

'비상, 바다를 날다'

여수 에코국제 음악제 19~21일 예술마루

여수시가 주최하고 (재)범민문화재단(대표 정희선)이 주관하는 제10회 여수 에코국제 음악제가 19일부터 22일까지 여수 예술마루에서 열린다.

'비상, 바다를 날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첼리스트 김민지 서울대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일리아 라쉬코프스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김재영·이지혜, 비올리니스트 이한나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 연주자들은 투 피아노, 피아노 5중주, 현악 8중주 등 다양한 앙상블을 구성해 다채로운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첫날인 19일(오후 7시)에는 피터 워록의 '카프리를 모음곡', 엘가의 '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가 공연되며 이번 음악제를 위해 주최측이 작곡가 이지수에게 위촉한 '민요풍의 모음곡'이 초연된다. 피날레곡은 현악앙상블로 듣는 브리튼의 '심플심포니'다.

20일(오후 7시30분)에는 윤혜리, 조인혁 등 정상급 연주자와 함께하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베토벤의 클라리넷 3중주 '거리의 노래'를 만날 수 있다. 쇼스타코비치의 '현악8중주를 위한 두 개의 소품', 프랑크의 '피아노 3중주'도 연주된다.



첼리스트 김민지



피아니스트 김태형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21일(오후 5시)에는 투 피아노로 연주하는 라벨의 '라발스', 폴 쇤필드의 '카페뮤직', 라이홀트 글리에르의 '현악 8중주'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마지막 날인 22일(오후 5시)은 13명의 첼리스트로 구성된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의 무대로 꾸며진다. 영화 '귀여운 여인', '시네마 천국', '야비정전'의 영화 음악과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온' 등을 선사한다. 전석 5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상송에서 시네마까지 '프렌치 무드'

광주극장·프랑스문화원 공동, 22일 음악콘서트·영화 상영회

프랑스의 음악과 영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행사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광주극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프랑스문화원과 공동 주최한 음악콘서트 및 영화 상영회 '음악으로 통한다!'를 선보인다. (입장료 예매 3만원, 당일 구매 3만5000원, 광주극장 후원회원 2만원.)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마들렌(MADELEINE)이 내한해 무대를 꾸민다.

상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마들렌은 프렌치 팝과 EDM, 클래식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싱글 '얼음(Les Glaçons)' 등 맑은 음색과 감각적인 가사로 사랑받는 신예다. 이번 공연에서는 비올라·피아노·기타·우쿨렐레 등 네 가지 악기를 활용한 라이브 무대를 통해 감성적인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이어 오후 5시에는 실뱅 쇼메 감독의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이 상영된다. 댄스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33살의 폴이 우연히 이웃 마담 프루스트의 집을 방문해 차와 마들렌을 먹고 과거의 상처와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의 기억 탐구 드라마다.



싱어송라이터 마들렌

동화 같은 영상미와 풍성한 음악이 주는 프랑스의 감성이 관객들을 때려시킨다. 행사 전날인 21일 오후 4시에는 김신형 작가의 북토크가 열린다. 예세이집 '오래전, 오래된 극장에서'의 저자인 그는 극장을 중심으로 얹혀있는 도시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독립영화 배우 김세벽과 이서영 시인이 함께하며, 작가가 가장 애끼는 영화 중 하나인 정재는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도 상영될 예정이다.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는 "음악과 영화, 책이 어우러지는 이번 행사들은 오래된 극장이 지닌 매력을 다양한 콘텐츠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며 "광주극장을 사랑해주는 관객들에게 특별한 주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100년의 세월을 담다 오래된 대나무 밥그릇

비움박물관 기획전, 8월 22일까지

점차 더워지는 날씨, 시원한 공간과 자리가 그리워지는 시기다. 우리 조상들은 여름이면 자연을 활용해 더위를 피하는 지혜를 구현했다.

대나무는 공예품 외에도 실생활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연의 재료였다. 특히 대나무 밥바구니는 여름에는 밥을 보관하고 나르던 필수용품이었다. 서늘하게 밥을 보관할 수 있고 들안에서 일을 하는 이들에게 밥을 전달하는 데 요긴한 용품이었다.

무더운 여름, 다채로운 대나무 그릇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지난 17일 개막해 오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는 비움박물관 여름기획전시에서다. '100년의 세월을 담다 오래된 대나무 밥그릇'전은 대나무로 만든 도시락, 밥상, 밥그릇 등을 보여준다.



비움박물관 여름기획전시 장면.

<비움박물관 제공>

대나무 전시품은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오랜 세월을 담고 있는 대나무 특유의 무늬와 조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닳고 닳은 흔적들은 당시 물건을 사용하던 이름없는 이들의 소박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산업화가 되면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옛 물품들이 사라졌다. 대나무를 재료로 한 생활용품이 대표적이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

긴 대나무 소재의 품목들은 예술적, 공예적, 디자인적 요소를 갖추고 있어 실용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가치가 크다.

한편 박영희 비움박물관장은 "대나무로 만든 다양한 여름 생활용품들은 조상들의 겸박한 정신이 담겨 있다"며 "지금도 볼 수 없는 대나무 밥그릇, 대나무 밥상 등을 감상하며 더위를 잊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